

에 세 이

# 철새기행



김동정/아동문학가

## 철새, 돌아오다

마침내 철새가 돌아왔다. 저 먼 시베리아 대륙에서 훨훨 날아온 철새들을 보면서 문득 회귀(回歸) 본능을 생각한다. 사계절이 뚜렷하니 이렇게 잊고 지냈던 고귀한 생명들이 찾아오는구나! 봄이 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가을이 오면 북녘 땅의 기러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오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각종 철새가 푸른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사계절을 살아가는 텃새 또한 얼마나 많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고 기쁨이다. 참새, 까치, 제비, 할미새, 종다리, 까마귀, 직박구리, 딱새, 멧비둘기, 꿩, 백로, 올빼미, 수리부엉이, 해오라기, 휘파람새, 삿갓새, 지빠귀, 두견이, 딱따구리, 박새 따위의 새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곁으로 찾아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체 수나 밀도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실정

이다. 우리 주위에서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참새와 까치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봄철 들뜬에 나가면 자주 만날 수 있었던 뜸부기며 논밭 근처에서 흔히 보았던 꿩도 언제부턴가 구경하기 쉽지 않다. 딱따구리류 중 몸집이 가장 큰 크낙새는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종인데 안타깝게도 산림 훼손, 공해 시설의 범람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텃새 못지않게 겨울철새의 개체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독수리(천연기념물 제 243호), 큰고니, 두루미, 도요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재갈매기, 썩새,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황새 등등 그들이 살아 갈만한 서식지는 몇 군데에 불과하다. 물질문명이 낳은 폐해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새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 소리는 뭐랄까,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소리를 찾아 강으로 산으로 들뜬으로 바다로 떠나는

것이리라.

강 하구와 들판이 어우러진 곳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야말로 철새들의 잔치 마당이 된다. 국경을 초월해서 날아온 갖가지 철새들은 이 지구라는 땅 덩어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 갈라진 대륙과 대륙, 인종간의 지리한 싸움이 한낱 헛됨 것임을 몸짓으로 알려준다.

무릇 모든 생명들은 나름의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 세상에 교통법규가 있듯이 새들 세계에서든 그들만의 말과 질서가 있다. 저 창공의 철새 무리를 보라.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지 않는가. 선두에서 후미까지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춤을 추듯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경이로움을 넘어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과학자들조차도 새들의 이런 현상에 대해 그 정확한 원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철새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보통 3개월에 걸쳐 수 천 수 만 킬로에 달하는 긴 여정을 떠난다고 한다. 때론 비바람을 뚫고, 때론 뭉게구름과 푸른 하늘을 벗삼아 그네들이 살 곳을 찾아 힘찬 날갯짓을 한다. 그들에게는 늘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자칫 이동 경로를 벗어나기라도 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는 늘 긴장이 따른다. 또 스스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힘을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람 사는 이치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철새들의 생존법칙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침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새들의 천국이다. 이른 아침, 고운 목청으로 울어대는 새소리에 문득 잠이 깨면 덧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상쾌한 하루를 열었던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새소리는 끊어질 줄 모르고 내 귓전을 맴돈다. 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옛 어른들은 새에 대해 유난히 애착이 강했다. 전설이나 속담에 새가 자주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학같이 건강하게 살라’, ‘원앙이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학(두루미)은 동양화나 도자기, 병풍 따위의 예술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십장생 중 하나로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다. 효도의 상징인 까마귀, 흥부전에 나오는 박씨에 얽힌 제비 이야기 등도 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보릿고개 시절, 소쩍새가 ‘소쩍다, 소쩍다’하고 울면 금년에 풍년이 들어 집에 있는 술이 작으니 다음 장날에 큰술을 준비하라는 뜻이며, 소쩍새가 ‘소탕, 소탕’하고 울면 금년에 술이 텅텅 빌 것이니 큰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한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뱀새(붉은머리오목눈이)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다리가 찢어진다’와 같은 속담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게 된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많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비록 외국 속담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다.

겨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철새들의 대이동을 보기 위해 강 하구와 들판으로 모여든다.

이른바 ‘탐조여행’은 자연학습도 겸할 수 있어 아이들을 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아주 좋다. 강(호수)이 있고 개펄이 있고 논과 밭이 있는 곳이면 철새들이 피기 마련. 이런 곳으로 철원평야, 금강하구둑, 천수만, 낙동강 하구, 고천암호, 주남저수지, 우포늪, 화진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천수만과 금강하구둑은 가장 많은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한 달간 열리는 철새축제는 이곳이 철새의 고향임을 알려준다. 천수만은 긴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서해의 넓은 갯벌과 두 호수(간월호와 부남호)가 있고, 갖가지 먹이가 풍부한 광활한 간척지(논)를 두고 있어 철새들이 살기에 최적지이다. 넓은 수면 위로 가창오리와 백조를 비롯한 각종 철새들이 수만 마리씩 떼지어 앉아 있는 모습은 진풍경 그 자체이다. 특히 일몰 무렵, 하늘을 덮은 가창오리의 군무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들 철새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금강이 서해 바다와 만나는 곳이라는 금강하구둑에도 해마다 겨울이면 수많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 날아드는 도요새와 물떼새는 국내 최대이며 고배울 망원경과 관련 시설을 모아둔 철새전망대는 이곳만의 자랑거리다. 또한 두루미와 독수리를 볼 수 있는 철원평야도 탐조지로 제격이다. 특히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국방부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라 새들이 많이 찾아든다. 구철원역과 월정리역, 통일전망대, 강산 저수지, 삼술리(아이스크림 고지) 등지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다.

탐조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키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대개 새들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먼 곳을 볼 수 있는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가져가면 여러 모로 편리하다. 또 조류도감이나 수첩도 필요하다. 도감은 그림이나 사진이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한 것이면 더욱 좋다. 새를 관찰하고 모양, 환경, 날짜, 특징 등을 기록해두면 훗날 훌륭한 자연 학습장이 된다. 기록할 연필이나 볼펜은 짧은 것으로 수첩에 묶어두면 편리하다. 새들의 울음소리와 인솔자의 설명을 녹음해 두면 실감나는 기록이 된다. 그리고 복장도 중요한데, 시력이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새는 눈에 잘 띄는 색(적, 황, 백 등)을 보면 날아가 버린다. 따라서 주변 색깔에 잘 어울리는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도록 한다.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것을 보려고 돌을 던지는 행위도 절대 금물이다. 이밖에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새 둥지를 건드리는 일도 삼가야 한다.

야생조류 관찰 10계명(환경부 수칙)

- ① 대화는 소곤소곤, 걸음걸이는 살금살금
- ② 녹색이나 갈색 옷이 좋아요
- ③ 가까이 가지 마세요
- ④ 새가 사는 주변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 ⑤ 새 둥지는 있는 그대로
- ⑥ 우르르 몰려다니면 무서워요
- ⑦ 돌을 던지면 큰일나요
- ⑧ 사진 찍을 때 조심하세요
- ⑨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⑩ 자동차는 싫어요